송 덕 진 덕산상사 대표

월간양계와 함께 한 16년

▲ 송덕진

1986. 2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졸업
1987. 12~1995. 9 중앙케미칼 기획부, 국내 마케팅, PM, 해외 마케팅
1995. 10~1997. 8 (주)대호, 마케팅 팀장
1997. 9~1998.12 Roche Products Korea Co. Ltd, MFA Business 이사
1999. 1~2000. 2 Roche Vitamins Korea Co. Ltd. Marketing 이사
2000. 2~2002. 1 Roche Vitamins Australia Pty. Ltd.
Sales and Marketing Manager
2002. 7~ 2004. 9 MBA at UTS in Australia
2005. 2~ 현재 덕산상사 대표

본지가 양계전문지로 태동한 1969년을 시작으로 어느 덧 창간 3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지인들의 아낌없는 도움과 열정이 더해져 지금의 월간양계가 쉼 없이 달려오게 되었다. 이달에는 본지에 16여 년간 '해외양계정보'란을 통해 해외 최신 양계 기술 및 정보를 기고함으로써 국내 양계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덕산상사 송덕진 대표와 인터뷰 자리를 가졌다.

축산업에 발을 들이기까지

송덕진 대표가 축산업계에 몸담게 된 것은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을 졸업한 후 1987년 중앙케미칼 (현, 중앙바이오)에 입사하면서 부터였다. 중앙 바이오에 8년간 근무하는 동안 기획, 마케팅, PM(product manager)등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비타민 개발 등에 참여하였으며, 해외 영업을 담당할 때는 생균제, 항 곰팡이제, 비타민제등을 수출하여 25회 무역의 날에 5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이후 사료 첨가제 전문회사인 (주) 대호의 마케

팅 팀장 자리를 거쳐, 1997년부터는 스위스계 다국적 기업인 비타민 전문회사 로슈 프로덕트 코리아 (Roche Products Korea)의 MFA(Medicinal Feed Additives) 마케팅 이사로 근무하면서 성장촉진제 CTC (Chlortetracycline)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고, IMF를 계기로 Roche가 한국에 직접 진출한 1999년부터는 로슈 비타민 코리아(Roche Vitamins Korea, 현,DSM) 에서 마케팅 이사로 근무 했었다. 2000년에는 호주로 근무 발령을 받아 로슈 비타민 오스트레일리아 (Roche Vitamins Australia Pty. Ltd.)에서 Sales & Marketing Manager로 프리믹스(Premix) 업무 및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에 의한 실시간 경영기법과 서구식 영업 방식을 경험하게 되었다.

MBA 그리고 덕산상사 설립까지

송덕진 대표는 한국에서의 Premix 공장 완공과 함께 Premix 업무담당 이사로서 귀국하려던 계획이 회사 사정으로 변경 되면서, 인생의 재충전 기회를 갖게 된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유학을 해야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영어공부를 꾸준히 해왔던 송 대표는 그간 국내와 해외 근무를 하면서 쌓은 경험을 좀 더 다듬고 체계화 하고자 UTS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에서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과정을 밟게 된다.

주로 자연과학적인 지식과 사고방식을 가졌던 그간의 영역에서 회계, 재무, 인사, e-Business, 마케팅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과목들을 공부하여 인문 및 사회과학 쪽으로도 시야를 넓히는 계기를 맞게 된다. 이때 세계 50여 개국의 학생들과 group project등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사고방식을 접하게 되었으며, 2년간의 MBA 학위를 마치고 귀국 하여, 2005년 2월 사료 첨가제 전문 판매 회사인 덕산상사를 설립하였다.

미야리에는 차별화가 보인다

덕산 상사는 "덕이 있는 산"이라는 뜻을 지녔으며 '신의와 덕'을 중시하고,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여 그 대안을 제시 하는 것을 사업 이념으로 하고 있다. 주력 품목인 미야리(Clostridium butyricum Miyairi Ⅱ 588)는 1939년 일본에서 의학 박사인 미야리 겐지에 의해 개발된 제품으로 덕산 상사가 국내 사료공장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미야리는 60여년 동안 꾸준히 인체 및 동물에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FDA공인 제조시설에서 인의 약품 규격 (Pharmaceutical grade)으로 생산되고 있다. 또한 미야리에 관한 효능은 수많은 실험실내

▲MBA 과정 당시 세일즈마케팅 그룹원들과 함께…

실험과 사양 시험 논문을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해 오고 있어 어떤 제품보다 풍부한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일반 생균제들이 호기성인 반면 미야리균은 혐기성 균으로 혐기상태인 소장과 대장에서 작용한다. 미아리균은 살모넬라와 대장균을 살멸시키는 것이 증명 됐으며, 콕시듐과 류코사이토준 억제에 대해 용도특허를 갖고 있다. 또한 장내에서 번식하면서 뷰트릭 산(butric acid)을 생성하여 장관내 염증을 치료하고 유산균과 같은 유익균은 증식시키고 병원성 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미야리균은 지용성 비타민 A, E의 흡수율을 높이며, 특히 설사예방과 미 소화분(未 消化糞)을 줄이며, 암모니아 생성도 60%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발표 되었다.

▲송덕진 대표는 호주 근무와 MBA 학위를 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송덕진 대표는 과거에도 미야리 제품이 시판되어 왔지만, 지금 와서 더 관심을 받게 된 이유를 성장 촉진용 항생제의 사용이 금지되고 유기축산물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체 첨가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그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들을 발굴하여 새로이 판촉 함으로서 사료공장에서 미야리에 대한 가치를 다시금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월간양계와의 인연

창간 38주년을 맞는 월간양계와 송덕진 대표와는 해외양계정보라는 지면을 통해 16년의 세월을 함께 해 왔다. 세계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한 번의 거름도 없이 매달 원고를 보내와 벌써 192회째를 맞고 있으며, 200회를 맞이할 날도 머지않았다.

과거 중앙케미칼 재직시 Poultry International, World Poultry등 해외양계전문지의 내용들을 발췌하여 한정된 고객 농가에게만 DM(direct mailing)으로 활용 하던 것을 당시 본지 기자에게 번역 문 기고를 제안한 것이 시작이 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데, 원고지에 펜으로 써서 Fax나 우편으로 보냈던 것이 이제는 추억으로 남게 됐다고 한다.

송덕진 대표는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문을 번역 하며, 번역 후 곧 바로 송고 하지 않고 반드시 하루를 지낸 뒤 퇴고과정을 거쳐 송고 한다고 한다.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관련된 정보를 발췌하여 내용을 보충함으로서, 독자들에게 보다 알찬정보를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송 대표는 양축 가들에게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을 공급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양계 및 축산 정보들을 월간양계에 기고할 것이며, 회사 이름처럼 '덕이 쌓이는 산'과 같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한다.

(정리 | 기영훈 기자)